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자 료 집

-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 오후 4시~7시
-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주최 :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관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 후원 : 인천광역시





##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 일 시 : 2020년 4월 22일(수) ~ 6월 3일(수) 4시~7시
- 장 소 : 틈 문화창작지대 교육실
- 접수기간 : 2020년 4월1일(수)~4월14일(화) 저녁 6시까지
- 접수방법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idph@hanmail.net으로 전송
- 대 상 :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내외
- 이수요건 : 전체수강의 90% 참여(이수증 발급)
- 문 의 : 032-862-5353/010-2045-5159(담당:정윤미)

일시	주제
4/22(수)	민주시민교육과 만나기
4/29(수)	영입로 보는 민주시민교육
5/6(수)	민주와 다양성
5/13(수)	경제와 민주시민교육
5/20(수)	교육, 민주시민역량육 기르다
5/27(수)	마을과 민주주의, 민주시민
6/3(수)	민주시민교육안 만들기

※상황에 따라 장소와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후원:  인천광역시





## 차 례

◆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 -----	01
정하윤(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민주와 다양성 -----	09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 경제와 민주시민교육 -----	16
송영석(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마을과 민주주의, 민주시민 -----	27
이혜경(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교육,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다 -----	47
김용진(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영화로 보는 민주시민교육 -----	69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

정하운 (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주요 내용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1. 의미업: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4.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인가?

■ 사회 갈등 심화

경제양극화, 이념, 세대, 감정, 중간소음, 난민, 다문화

■ 양성평등

성폭력, N번방, 일베, 여혐, 와마드, N번방

■ 가짜뉴스 논란

■ 프랑스



2015년 테러 발생 이후 프랑스 정부는 교육체계 내로 시민성 교육을 재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스웨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민자를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학교 선택, 교수 학습 역량, 언어 교육과 다양성 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다양성 인지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와 사회과정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민주시민교육은 제도나 체계로서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생활속, 일상속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민주제도를 구축했음지라도 시민들이 민주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장시불에 불과하게 됨. 시민의식의 고취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제 조건이 됨.
- 민주화 이후 만국의 민주주의는 체제와 제도 측면에서 점차적 발전을 이루었음. 정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기적 선거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며, 정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음.
- 2016년 촛불여명을 통해 왜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민이 중요인지, 왜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증명하였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고하도록 만들었음. 특히 촛불여명은 일반 시민들이 점화시켰다는 점에서, 더불어 일상생활에 녹아든 시민들의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계층과 세대의 격차, 지역과 이념 갈등 등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가로막는 병행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시민들의 참여부족 등을 볼 때 민주주의의 외형적 발전에 비해 실질적 발전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은 사회 속의 주체, 주권자로서의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1.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 개념

- 인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9)
  -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05)
  - “시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적 노력”
- 학자들의 정의
  -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 곧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의 함양에 대한 교육” - 장은주
  - “교육과정 자체가 점차적 민주성을 증진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지양을 갖는 공헌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 정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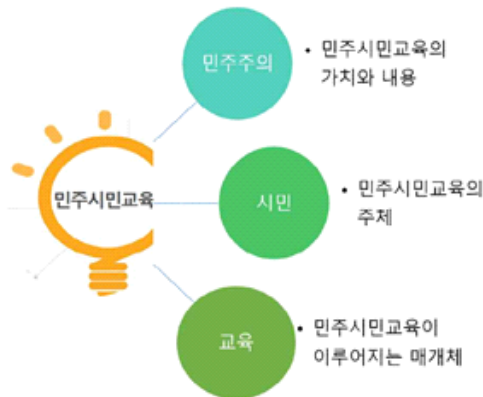
1.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해외 각국의 민주시민교육 개념

프랑스		지식과 실천, 학습과 태도를 연결시키는 시민정신을 지양하는 시민성 교육 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시민성교육/ 시민성 함양 교육)
핀란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학습 및 실천하기 위한 교육. 통합적(holistic), 실용적(pragmatic), 가치 기반(value-based) 접근
독일		사회 구성원에게 집단, 조직, 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 politische Bildung (정치교육)
영국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고취, 사회적 참여 촉진, 정치적 리터러시 향상,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포용적 이해. citizenship education (시민성교육)
미국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민주적 태도, 기술 및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 civic education (시민교육/ 공민교육)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



출처: 문성근 역음, 2017. 『행동가가 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서울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민주주의 — 공민가치로서의 민주주의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 대의제의 보완: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속의 민주주의 등
  - Governance (형치)
- 원리로로서의 민주주의
  -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공화의 가치
- 실천으로로서의 민주주의
  - 참여와 실천
  - 생활속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시민 (시민성) — 사회적 존재로서의 시민

- 장은주 교수의 “민주적 시민성”
  -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옹호하며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민적 역량과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 “시민은 가족에서부터 학교를 거쳐 성인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전체에서 시민으로서 교육되고 시민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Gert Biesta 교수의 “시민성” 분류
  - 사회적 시민성 — 적극적 책임감
  - 도덕적 시민성 — 개인의 자질과 행동
  - 정치적 시민성 — 시민성과 민주주의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 사회적 권리의 인식.
-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능력
-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능력
- 방법론적 활용능력

2.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교육 — 학습자가 곧 교수자

-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다.” (존 듀이)
- (※ 쟁점: 교육에 있어 공공성 강화의 문제, 정파적, 이념적 중립성의 문제)
- 시민교육은 교육과 실천이 분리된 교육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육과 실천을 동시에 행하는 학습공동체
  - ✓ - 과정 중심의 힘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 ✓ - 지식· 정보· 가치관· 태도, 기술· 역량 요소의 균형과 확장
  - ✓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연결과 융합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독일의 시민교육



- 내용과 운영원리로서의 정치, 제도화.
-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
- 보이텔스바움 합의(1976)
  - 광범(교과)의 금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고 그걸로써 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된다
  - 논쟁성 재연: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 이해관계 인지: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마그데부르크(Magdeburger)(2005) 합의문: ‘민주적 배움과 민주적 삶을 함께 지양하는 교육’
- 특징
  - 국가가 시민교육에 개입하고 정책을 주도하지만, 시민교육 주체들의 교육활동은 자율적이며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와 배합, 두 기제의 대개체로 정당의 역할.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스웨덴의 시민교육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육. 포크빌트닝(folkbildning)
- 조합주의적 정치기제. 19세기 민중운동의 역사, 20세기 노조 및 시민주의. 보통교육과 성인학습 공동체. 복지제도와의 연관성
- 사회적 합의. 토론에 익숙한 문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 시민교육의 원형. 시민교육 단체들(학습단체, 고등대중학교)
- 특징
  - 자발적 소규모 학습모임과 학습동아리 형태. 상향식 결사체 민주주의적 성격. 조합주의적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조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연이).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7080215077862715&googleamp#\\_eniple](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7080215077862715&googleamp#_eniple)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미국의 시민교육



- 시민사회 영역의 시민교육
- Center for Civic Education
-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 (Tocqueville의 자발적 결사체)
-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 담론의 (재)생산 공간이자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점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1607-1775년 (독립전쟁)	Y	Y	Y	N
1775-1940년	Y	Y	Y	Y(1840-1863 세희)남북전쟁
1940-1965년	N	Y	Y	Y
1965-1990년	N	N	Y	Y
1990년-	N	N	?	Y

출처: S. Huntington (2017)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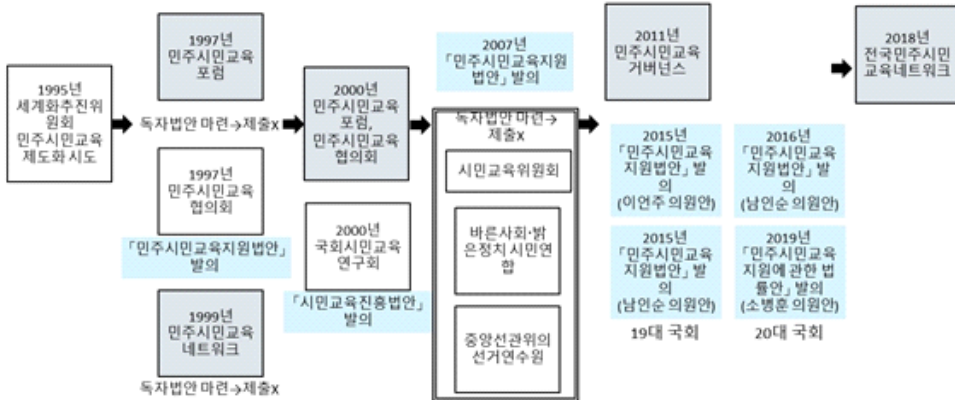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태동기 (1945-1960초)	발흥기 (1960-1980후)	제도화 추진기 (1990-2002)	제도적 착근기 (2003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적 민주주의 강조</li> <li>• 국가에 대한 충성심</li> <li>• 체제옹호 강조</li> <li>• 자국민주의와 애상과 민족주의의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입적인 국가주의적 정치교육 강조</li> <li>• 재야 지식인, 민족학교 중심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체계 마련</li> <li>• 국가주의 대 민족영역</li> <li>• 반공교육, 국민영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외부 교육 시작</li> <li>• 시민단체와 민주시민교육 제도</li> <li>• 공적영역, 연소원, 교육원</li> <li>• 민주시민교육학회</li> <li>• 제도화 논의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정책들과 민주시민교육</li> <li>• 학교 교육을 통한 제도화 시도</li> <li>• 저차체 자체 교육 (2014~)</li> <li>• 경기도 학교 교과서 도입</li> <li>• 2010년 역사적 의미</li> <li>• 2018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설</li> <li>• 2018 전국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출범</li> <li>• 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양화</li> </ul>

출처: 정창화(2005)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 10호에서 발췌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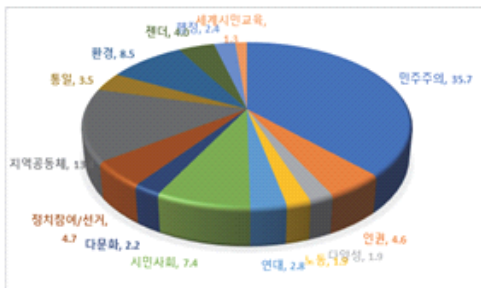
###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논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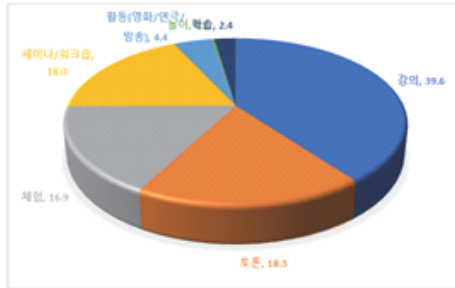


###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 한국 민주시민교육 현황 \_서울시 사례



서울시 관련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분야별 분포



서울시 관련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핵심 유형분포

출처: 서울시립대 산학단. 2018.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연구용역』,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곁**  
Democratic Civil Education Project SIDE

시민 곁에,  
시민교육 활동이 곁에...

4월 1일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갈수록  
4월 15일 주민사움 조장가들 모상대회  
4월 20일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갈수록  
4월 25일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갈수록  
4월 30일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갈수록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

모상대상자 선정기준  
1.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에 참가한 주민사움조장가들  
2.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에 참가한 주민사움조장가들  
3.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에 참가한 주민사움조장가들  
4.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에 참가한 주민사움조장가들  
5. 우리동네 주민사움조장가들 모상대회에 참가한 주민사움조장가들

**필리핀트**

필리핀트 정치보도게임  
필리핀트 정치보도게임  
이 조력자 정보 1.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2.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3.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4.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5. 필리핀트

필리핀트 정치리뷰쇼  
필리핀트 정치리뷰쇼  
이 조력자 정보 1.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2.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3.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4. 필리핀트  
이 조력자 정보 5. 필리핀트

3.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더 무의 학교**  
비밀한 새마을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

1. 1월 15일 - 2018. 3. 15 (토) - 4. 15 (토) 14:00 시작  
2. 1월 15일 - 2018. 3. 15 (토) 14:00 시작  
3. 1월 15일 - 2018. 3. 15 (토) 14:00 시작  
4. 1월 15일 - 2018. 3. 15 (토) 14:00 시작  
5. 1월 15일 - 2018. 3. 15 (토) 14:00 시작

**누구나 정상회담@대전 시즌2 - 제대로 열다**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2  
4월 14일(토) - 29일(토) 대전 지역 곳곳에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2이 열릴 예정입니다.

1. 어느 시간 모임  
3월 13일(화) - 7월 14일(토)

2. 대화의 날 주제발표  
3월 27일(토) - 4월 7일(토) 대전광역시 동구 신정 1동 1층 시민교육센터 2층 대강당

3. 대화의 날 주제발표  
4월 14일(토) - 17일(토) 대전광역시 동구 신정 1동 1층 시민교육센터 2층 대강당

4. 누구나 정상회담@대전 시즌2  
4월 14일(토) - 29일(토) 대전 지역 곳곳에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2이 열릴 예정입니다.

5. 시민 참여 협력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6. 결과 공유  
3월 13일 - 4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 신정 1동 1층 시민교육센터 2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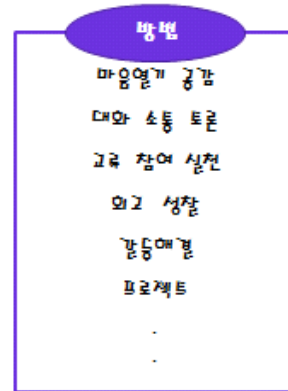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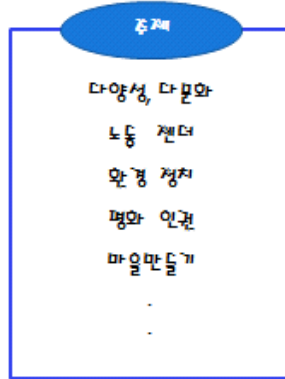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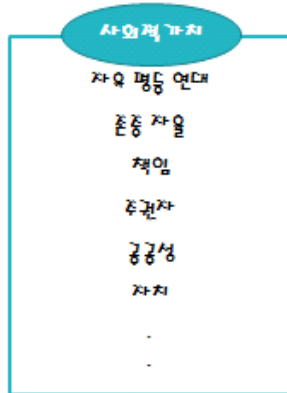
4.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의 쟁점

-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 선거연수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 및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 정치,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사회 요소들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으로 다룸 (일반화, 다양화)
- 쟁점
  - ✓ '무엇이 민주시민교육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 ✓ 제도화가 가능할 것인가?
  - ✓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 (시민의 역량과 권한의 문제)
  - ✓ 누가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인가? 공급자인가, 수요자인가?
  - ✓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방향성은 무엇인가?

4.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요소?



4.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시민교육의 쟁점

- 민주시민교육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요소가 있을지라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라고 딱 짚어서 정의하기 어려움
  - ‘어디까지가 민주시민교육인가’ 경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주입식, 일방양성, 마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인가?
    - 꽃꽂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인가? 아닌가?
    - 반공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인가? 아닌가?
    -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교육인가? 아닌가?
-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 > ICCS가 제시한 시민교육의 목표

사회/정치/시민 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갈등해결 기술과 효능감을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증진
지역사회에의 학생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생활에 참여 증진	인종차별 감소 전략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참여 준비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 민주와 다양성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 민주와 다양성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0.05.06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운영위원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와 인권 >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 사회문제론 >



서울예술대학교 < 예술과 젠더 >



대한성학회 이사, 학술위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회이사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인**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 : 권리



내가 “사람답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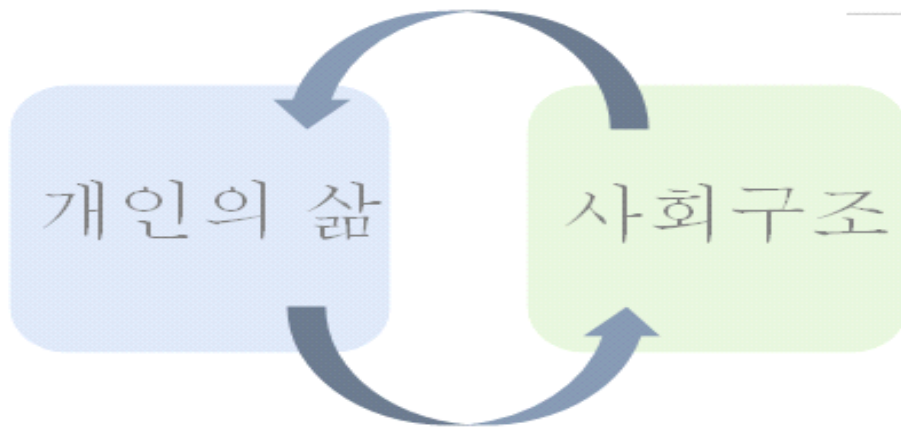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제도, 문화 등 무엇이든 나열해 보자.

## 인권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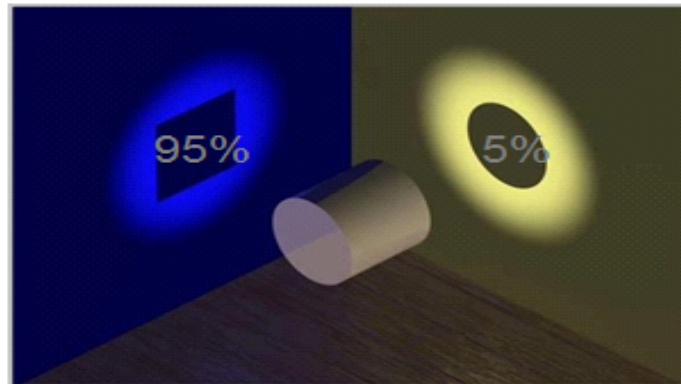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 A: 권리 의주체
- B: 의무의 주체
- C: 권리의 근거
- D: 권리의 내용





## 정상 vs 비정상



## 사회적 정체성 표

# 차별 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 [사회화 과정의 순환]



**Top down approach**  
하향식 접근 방식  
법과 제도의 변화

차별금지법제정  
인권조례제정  
성평등조례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

인권, 성평등, 노동교육  
선거제도개혁

**Bottom up approach**  
상향식 접근 방식  
나와 공동체의 인식 변화

풀뿌리운동,  
독서, 독서모임,  
동아리, 학회,  
교육, 집회 등 참여  
지지하는 단체 및 정당  
가입 및 활동 참여

성경과 성소수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감사합니다 Q&A



페이스북 :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 [diversity.or.kr](http://diversity.or.kr)

한국다양성연구소

사회적 정체성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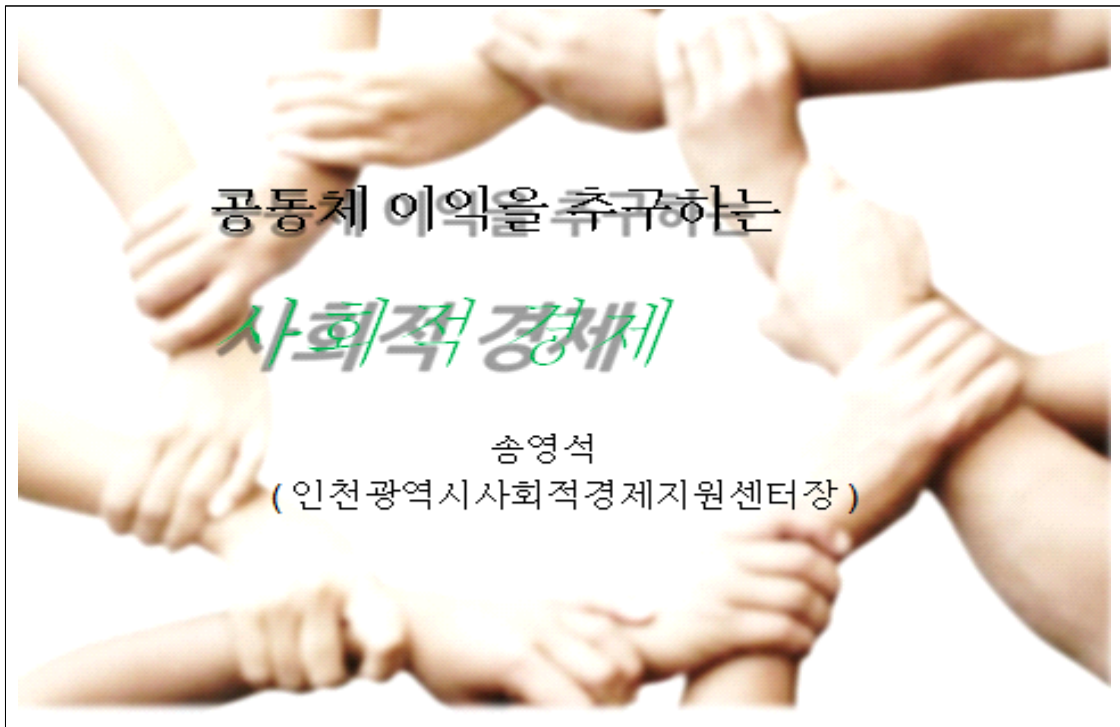
사회적 정체성	특권그룹	억압그룹		차별의 이름
		경계그룹	억압그룹	
인종	백인	백인 혼혈인	유색인종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민족	"순수" 한국인, 한민족	피부색이 밝은 혼혈인	피부색이 어두운 혼혈인/유색인종	민족(우월)주의 단일민족신화
성별	남성	간성	여성	미소지니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성별정체성	시스젠더	젠더퀴어, 안드로진 중성적/양성적	트랜스젠더	시스젠더주의 트랜스포비아
성적지향	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 호모포비아
나이	장년층(4-50대)	청년층 (20대, 30대)	어린이청소년, 10대, 노년층	나이차별 나이권력
지역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시골산간지역, 지방 도시, 전라도	서울중심주의 지역차별주의
가족의 형태	"정상" 가정 (부+모+자녀(들))	동거, 비혼, 코하우징	이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상한 종교 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종교)	무속신앙, 무교(무신론자)	무슬림, 증산도, 여호와의 증인 등	정상종교주의
장애	(일시적) 비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숨길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지체장애, 지적장애,정신장애, 발달장애,뇌병변장애 등)	비장애중심주의 장애차별
소득/경제력 (고용의 형태)	재벌, 부자, 상위계층	중산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정규직 등	사회계층주의 물질만능주의
학력/학벌	고학력, 고학벌	(상황에 따라 가변적)	저학력, 저학벌	학벌만능주의
외모	잘생긴, 예쁜, 몸짱의, 날씬한	보통 얼굴/몸매, 평범한	못생긴, 동뚱한, 깡마른 등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특권그룹이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더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억압그룹이란 단순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 그룹 때문에 부, 명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계그룹은 상황(때와 장소 등) 혹은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가변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의 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 상황, 장소,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와 민주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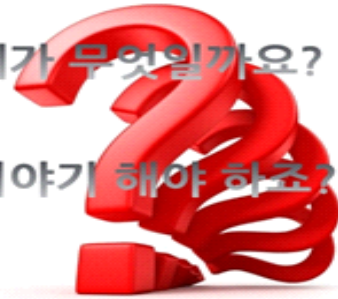
송영석(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들어가며

도대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일까요?

왜 사회적경제를 이야기 해야 하죠?



## 우리의 현실 돌아보기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회의 문제는 왜 남아 있는가?

경제발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 우리의 미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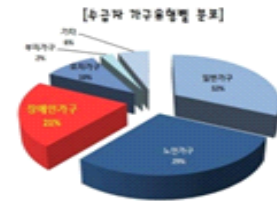
청년 실업의 시대



1 등만 기억하는 세상



#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인



# 설곳없는 노인 - 빈곤하고 외로운 삶

빈곤율 세계랭킹



외로운 인생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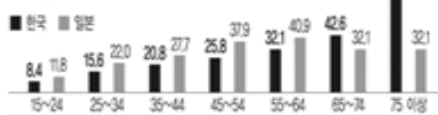
한국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변화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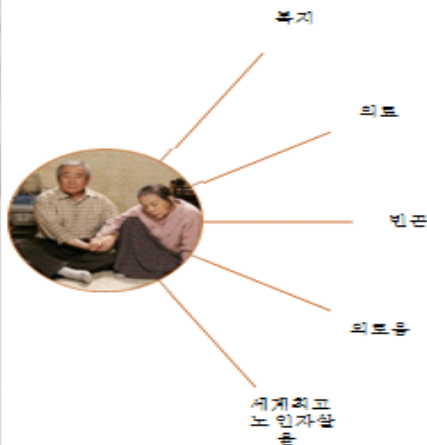
연령대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1995년	17.4	19.2	24.8	27.5	30.2	25.4
2005년	48	62.6	74.7	89	127.1	127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10만명당 자살시망수(2002년)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설곳없는 노인



# 누가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복지
- 노동
- 공동체
-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야 ...



##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 사회적 + 경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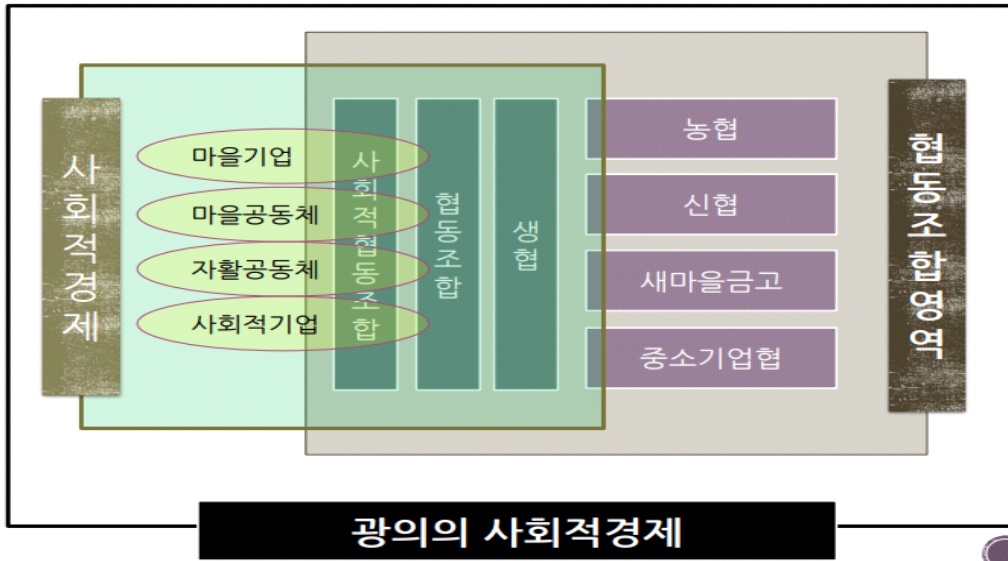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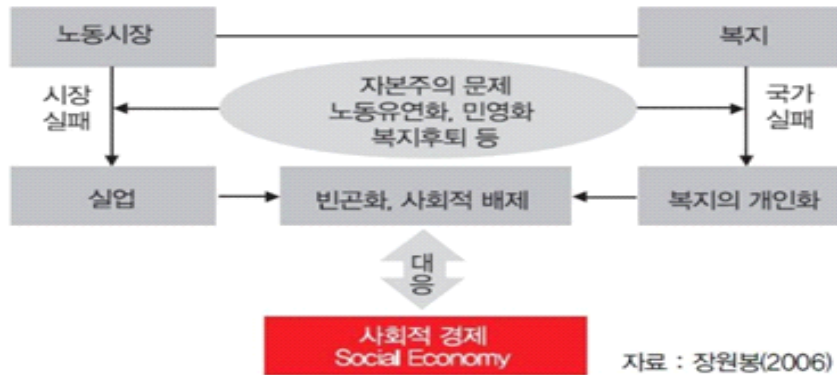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란

- 인간의 상호성에 기초해서 공동체구성원의 연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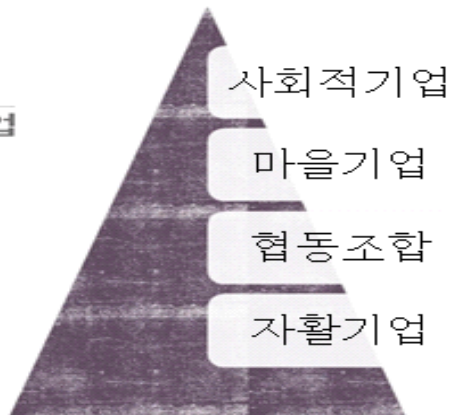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특징

- 집단소유
- 민주적결정
- 자율과개방(국가와시장)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체의 종류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현황

##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복지전달체계)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주민의 삶의질 향상)
- 혼합형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기타형

##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12년 12월시행)

- 협동조합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단초
- 사람들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 / 사회문제를 무엇이든 협동사업으로 해결가능

#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예비)인천형 / 부처형사회적기업

관련법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 의미와 사회적미션

- 지역사회의 필요를 사업화하여 실현 하는 것이 미션
-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 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 사례

## 사회적기업 헨인헨



▶ 헨인헨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 세심 및 책임있는 사업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  
▶ 사업  
초기 장애인 생산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사업

## 예비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인증

의미

- 마을의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 70% 이상 참여하여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사회적미션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마을기업 사례

리폼맘스



카페 외 할머니



## 협동조합은

사회적미션

- 공통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체

관련법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외 8개 개별협동조합법

의미

- 정부나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결사체

# 협동조합 사례



## 일반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 저가외식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우리농산물 판매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서촌우유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대리운전자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화우정합 협동조합, 인왕정이 협동조합



의 어르신 분야에서도 설립이 가능한 조직



## 협동조합의 사례 2 사회적협동조합

### 커피 위드인

· 자활과 민관협력의 사례



###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꿈을 현실로

- 지역의 필요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동도시를 만들어 가요
-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
-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자

## 이런것은 어때요?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건강센터로 바꾸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상을
- 생각을 바꾸어 지금의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의 중심을 건강마을로 상상 하자는 것이죠



## 사례(일본)



# 노인과 함께하는 건강한마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적경제체  
한국 미래를 대비하라

마을 안에 있는  
노인 공동주택  
(고령자협동주택)



## 그룹하우스 (고령자협동주택)



자원봉사(94년이후)도 참여하는 조합원



노인은 300 원을 내고 식사를 제공 받는다.

## 식사회 (지역복지와 자원봉사의 결합)



장소 - 무지개 자조센터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거동불편노인)

## 식사회



**감사합니다^^**

## 마을과 민주주의, 민주시민

이혜경(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마을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방향과 흐름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Incheon community support center

이혜경

자치회의  
권한과 기능

자치력을 갖추는 시간



자치의 이유와  
제도

행정과 마을의 준비

가좌2 사례

# 자치의 이유와 제도

## 주민자치의 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主權在民

헌법 제 1 조 2 항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 새로운 질적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Government → Governce  
시민 (citizenship) → 사익을 넘어 공익으로

#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경우 조례에 정확한 권한명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주민총회의 위상 명시)\*, 자치플랫폼 운영 기반 축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회가 집행과 행정을 동시에 맡는 기구로 뿌리내리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아직 명시 안됨)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의 주축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전체를 포용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이 지역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필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5월 시행



주민 =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  
Let the People Decide !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



일상민주주의 실현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지역(마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지역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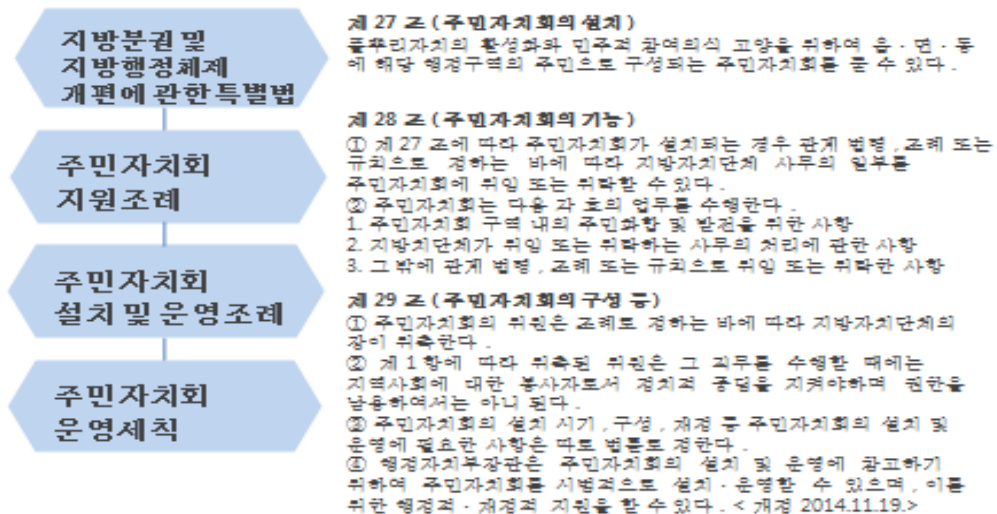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 흐름

1999	읍면동 기능전환 /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 실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3	주민자치회 1차 시범 실시 (전국 31개 지역) / 특교세 근거 :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 29 조
2015	주민자치회 2차 시범 실시 (전국 18개 지역) / 총 49개 근거 :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 29 조
2017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전국 20개 지역)
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 자치 발전 연혁

- 1949년 : 7월 지방자치법 제정
- 1952년 : 지방자치 실시 / 서울시, 도지사 (임명제)  
시, 읍, 면장 (간선제 : 지방의회에서 선출)
- 1956년 : 시, 읍, 면장 직선제
- 1958년 : 시, 읍, 면장 임명제
- 1960년 : 자치단체장 직선제
- 1961년 :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 해산
- 1988년 :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
- 1989년 : 읍, 면, 동장 직선제 내용의 < 지방자치법 > 개정안 통과  
 but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  
 -> 지방자치의 기초단위 : 시, 군, 구로 굳어짐
- 1990년 : 12월 : 지방의원선거법 개정
- 1991년 : 지방의원선거
- 1995년 : 민선 1기 지방선거 실시 / 1960년 이후 30년만의 부활
- 1999년 : 주민자치센터 정책 도입 / 시범 실시

2004년 : < 지방분권특별법 > 제정 공포 - 지방분권 추진  
 - 사무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건전성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참여확대제도 (한계 : 관공분권)  
 (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 )  
 2005년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2007년 :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명칭변경  
 2010년 : 지방행정개편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2011년 ~13년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1 단계 시범사업 추진  
 2014년 ~15년 2 단계 시범사업 추진  
 2016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마련  
 2016년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개명  
 2017년 12월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2018년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로 명칭변경, 사업 본격화

읍면동 행정현황 / 총 3,503 개 (2017년 행안부 기준)  
 읍 (221 개) / 면 (1,192 개) / 동 (2,090 개)

지방자치의 부활 -> 지역 시민운동의 촉발 계기  
 ( 주민자치운동, 소비자운동, 생협운동, 참여민주주의 시민운동, )

## 주민자치회는 무엇이 다른가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 )

###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점 (2019 행안부 조례 기준)

구분	기준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주민자치센터운영 -읍,면,동행정업무자문	-주민자치업무:주민총회개최,마을계획수립등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 -수탁업무:주민자치센터운영등주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업무
위원구성	-각급기관,단체추천및공개모집	-19세이상 -공개모집에신청과주민자치교육과정이수자
위원위촉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운영재원	-읍,면,동지원금및수강료	-자체재원(사업수입,사용료,회비) -보조금,기부금등

\* 2020 현재 조례 개정 검토중

## 목적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 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 29 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8. 28. 행안부 표준조례)

## 정의\_“주민자치회”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9. 8. 28. 행안부 표준조례)

## 정의\_“주민자치회 위원”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019. 8. 28. 행안부 표준조례)

## “주민자치회 권한”

- **제 8 조 (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또는 동, 읍·면) 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 (마을) 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 지역에 따라 제 5 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께 규정할 수 있음)
- 2020 개정 (안) 에는 권한삭제 (2019. 8. 28. 행안부 표준조례)**

## “주민자치회 기능”

- **제 5 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 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협의업무 : 읍·면·동 (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2.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 (마을) 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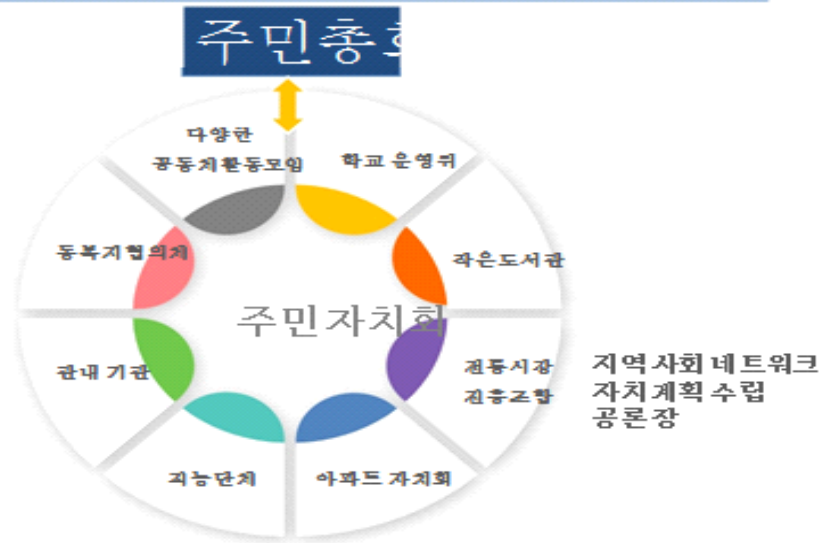
(2019. 8. 28. 행안부 표준조례)

## 주민자치회 활동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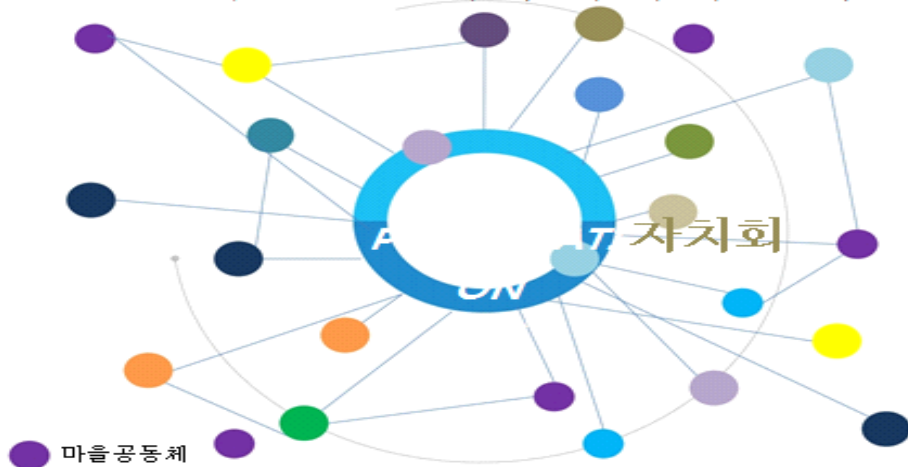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비고	
<b>준비</b>	①사전준비	•공직자교육, 주민설명회, 행정자치원계회수립	2019년/8월~9월
	②자치법규경비	•주민자치회설치운영조례제정, 상의제안조례, 지구회제규칙등제정	10월~11월
<b>구성</b>	③취원모집	•온·오프라인등을활용한홍보	11월~12월
	④신청자교육	•신청자들대상으로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필수교육6시간)	2020년/1월~2월
	⑤취원선정	•기본교육이수자들대상으로공개추첨	3월
<b>운영</b>	⑥자치규약	•운영내규마련및인원집진전문	3월
	⑦주민모집	•자치계회수립·운영에참여한주민모집 워크숍, 지역자원조사등	4월~5월
	⑧분과활동	•주민들이참여하는분과들구성, 마을의제반론, 분과별자치계회수립	5~6월
<b>협의</b>	⑨주민총회	•자치계회공동화(주민홍보, 안전사관, 현장부표등)	7월
	⑩행정협의	•자치계회리세부사업별시기구조·방범등세부실현방안승의및확정	8월
<b>시행</b>	⑪예산확보	•광역예산위계안및의회회결론필요필자이행	8~12월
	⑫사업시행	•프로그램(주민자치회), 공모사업등시행	2021년/1~11월
	⑬환류	•사업성과총결가주민총회에보고	12월

# 행정과 마을의 준비

## 마을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와 자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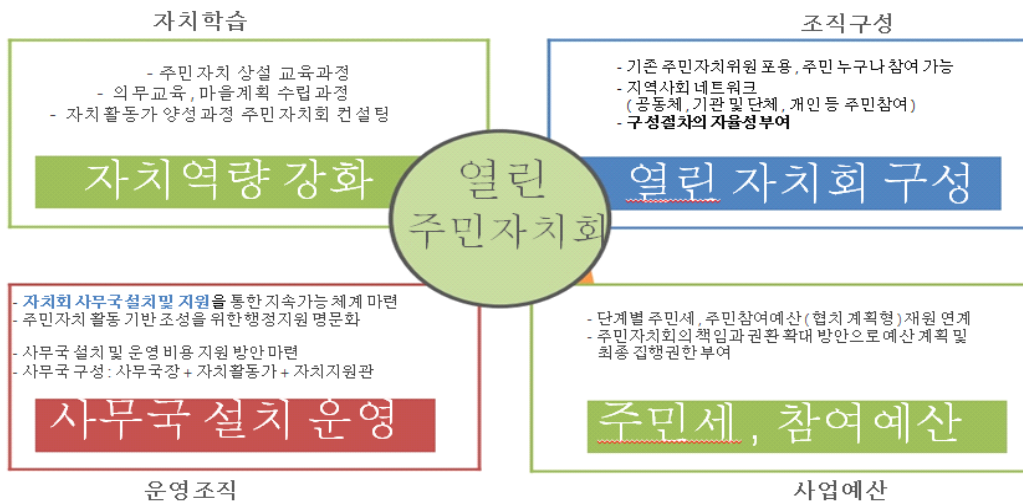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첫 단추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의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절차의 자율성 확대

## 열린 자치회 구성을 통한 권한과 책임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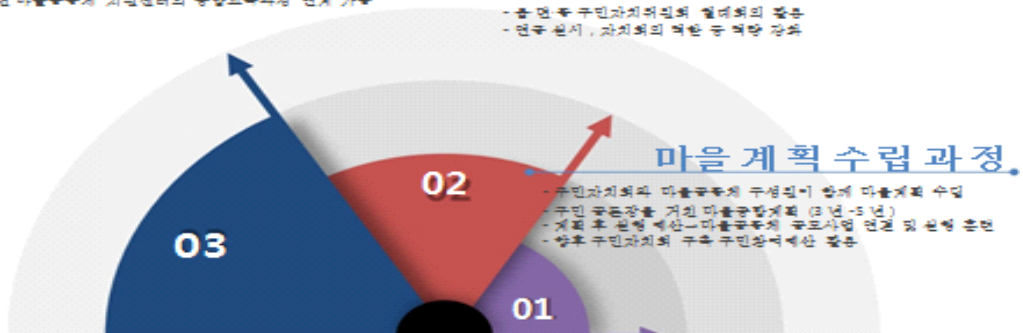
##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활성

### 상설 주민자치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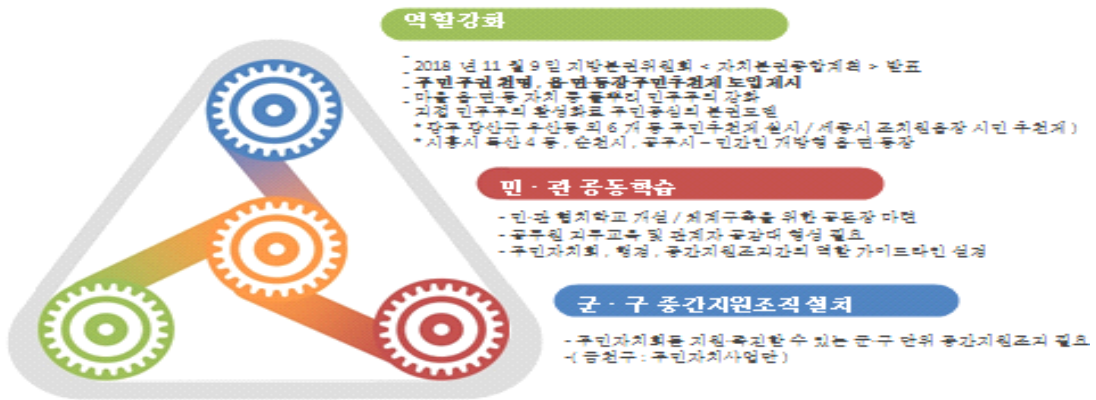
- 일반 시민 대상 자치교육시간 기존 주민자치회 비해
-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필수 과정이수 교육으로 활용
- 민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교육과정 연계 가능

###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열려회의 활용
- 연구원서, 자치회의 역할 등 역량 강화



# 읍·면·동장 역할 강화와 마을 협치 체



( )의 생각이 바뀌면  
마을이 변화한다!

# 자치활동가 양성과 지원체계 구축



##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공간 마련

문턱 없는 주민의 장소 만들기 /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 ○ (공간개선 및 분리)

- 동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 공간 마련 및 주민 편의적 업무공간 배치
- 마을의 활력화 공간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업 추진  
(예 / 가좌 2 동 공유부엌, 2017년 행안부 혁신 읍·면·동 구축 사업 재원 2억)
- 행정업무공간과 주민자치 공간 분리로 주민센터 주민에게 제공
- 주민 누구나 자치공간을 활용,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마을은 먼저  
(자치력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서는 잡하기 힘든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인 가득 찬 배구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가장 먼저 차지하는 아이들에게 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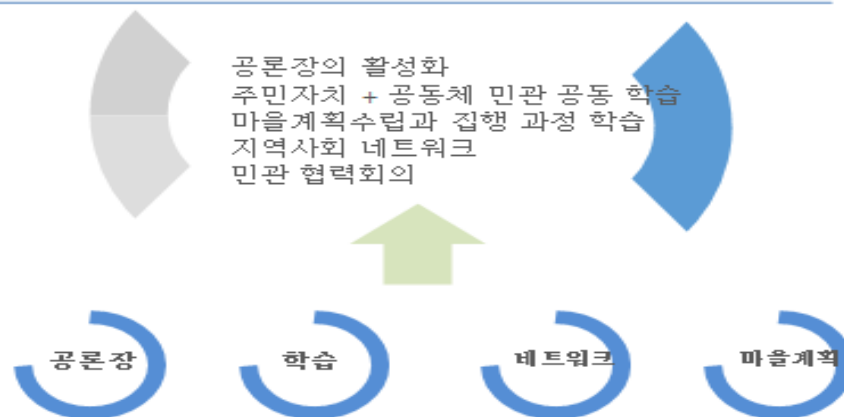
주민자치는 더불어 사는  
을 배우는 학교



## 주민자치는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



## 마을과 자치의 연결 - 자치역량이 관건



## 주민자치력을 갖추는 시간

권한  
주민이 결정하게 하라

#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떠받치는 힘, 즉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지역사회의 변화, 행정혁신,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에 이르게 할 것이다

## 공론장 참새방앗간 같은 일상의 수다장

# 자치 플랫폼은 주민에게 정보를 꼼꼼히 전달하고 숙의과정인 마을총회를 통해 개인의 이해가 공동체의 이해를 공론하게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

## 장소 주민이 담기는 매력적인 마을의 공간

## 마을기금 참여 예산제도, 주민세 바꾸니로 지역살림을!

# 주민세는 마을의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의 비용으로 쓰임이 있어야 한다

---

## 민관 공동 학습의 장

##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를 만

# 주민참여예산제도 외에 지역의 개발, 교통, 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지역의 자치조직 사이에서 정책을 공론과 합의하는 주민참여 정책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 마을정부 주민의회를 상상하라!

# 동장을 주민들이 뽑았으면 자치회가 동의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의회로서 행정등을 견제하는 역할 까지 공식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제도 실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_< 가좌동 더디, 십년 / 박현근교수 (대전대)>

# 주민자치사례 / 인천 가좌2동

## 가좌동 이야기 \_ 주민자치로 마을을 잇다



## 주민 조직 대표 활동

### ■ 주민자치활동 \_ 마을의제 실천 점검활동



#### 의제 실천활동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문화예술이 숨쉬는 마을  
어린이 체험학습 지속 마을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주민모임의 특징이 있는 마을  
정생학습이 지속되는 마을

###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 네트워크

가좌시장 골목형, 문화형 기획  
마을교육공동체 <동화>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누 연계  
두빛나래 지역복지협의체 활동  
관내 학교 / 직능단체 등

느누 청년활동가 시장프로젝트 평가회 | 푸른샘 + 가좌시장 연계 시장프로젝트

## 주민조직대표활동

### ■ 공유공간 만들기와 연결활동



가좌시장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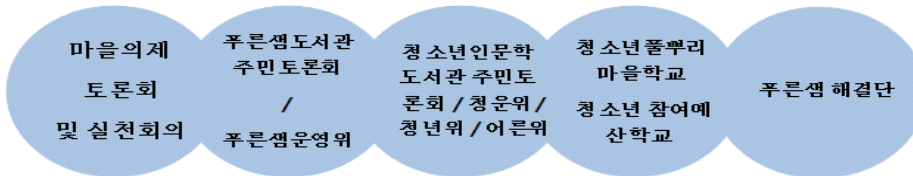


300년 교택에서 그림대회

- 푸른샘어린이도서관 (민관협력)
- 청소년인문학도서관느루 (주민주도)
- 가좌시장만화카페 (시장번영회 + 느루 + 푸른샘 + 주민자치위원회 + 행정협력)
- 마을기업사람사이카페 (주민주도)
- 도자기공방카페아바노스 (개인)
- 300년교택 (개인)
- 티타늄공장문화복플렉스예정 (개인)

## 주민조직대표활동

### ■ 공론장 만들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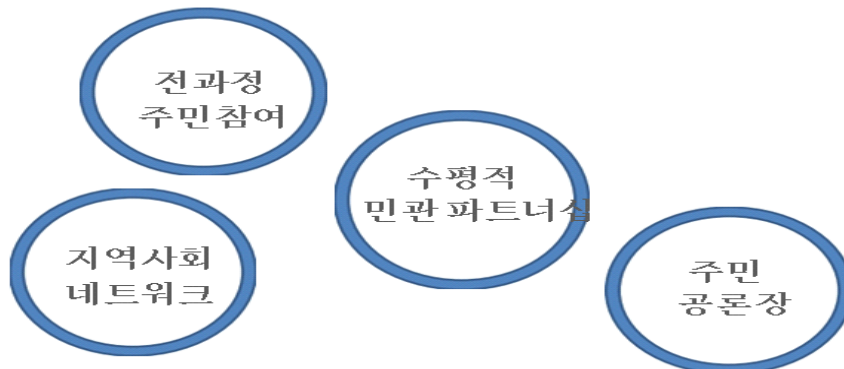


마을의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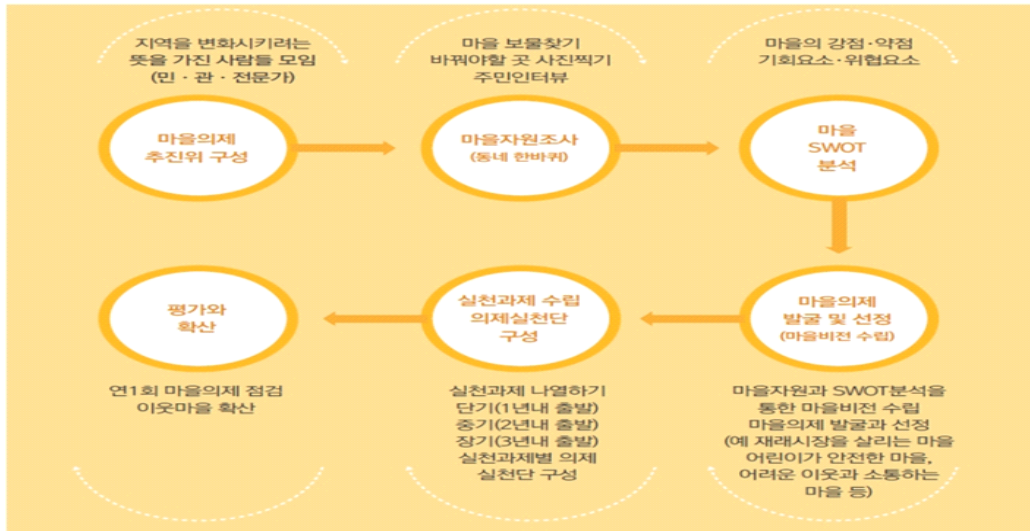


푸른샘해결단 활동

## 마을의제 수립의 몇 가지 원칙



## 마을의제 발굴 프로세스



## 마을의제 실천활동 제 1 기 2005-2014

주민토론 : 6 개월

참여인원 : 400 여명

참여조직 : 부녀회 등 11 개 직능단체

푸른샘도서관 자원활동가 모임

동화읽는 어른모임 / 3 개 아파트 입대위 자치회 , 관리소

관내 학교 , 가좌시장 , 지역아동센터 연계



###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마을

- 작은 음악회 / 푸른샘 도서관잔치
-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운영
- 자치센터 동아리활동
- 300년 고택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2006~2009)
- 마을소식지 < 가좌동사람들 > 발간 (2004~ 현 )

### 평생학습이 가능한 마을

-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프로그램
-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운영
- 청소년 풀뿌리 마을학교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 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 어린이 체험학습이 가능한 마을

- 멀리 안가고 동네에서 체험하기
- 푸른샘 해결단활동 ( 우당탕탕푸른샘해결단 )
- 동네아이들 함께 키우기 \_ 품모음



## 재래시장을 보호육성하는마을

- 마을의제팀 활동 \_ 청주 옥거리 시장 벤치마킹
- 마을소식지 \_ 시장사람들 인터뷰 기사
- 이야기책 발간 <예쁜이 시장에 가다>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 연계)
- 골목형 시장 사업 (2015년 /5억) / 문광형 시장 (18억 /2017~ 현)
- 주민조직 마을 n 사람 연계 시장활동 공동기획



##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마을

- 찾아가는 노인 프로그램 운영
- 홀몸노인 밀반찬 나누기 사업
- 어르신 무료곡수 (발견협의회)
-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



##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마을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워크숍 / 거리 의견 수렴
- 마을의제 발굴, 선정, 토론워크숍
- 민주적 회의 운영
- 일상적 회의 구조 마련 \_ 푸른샘 + 자치 + 행정



##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 마을의제 실천활동 제 2기 2015-2024

- 자치위원회 자체 토론 6 회
  - 준비위원회 토론 2 회
  - 마을의제 작성 주민참여 토론 4 회 (노인, 영유아, 초등부모)
  - 우수마을 견학 1 회
  - 마을의제 작성을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1 회
- 토론참여 311 명**



## 2기마을을의제

### 새로운 의제

어르신의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  
 엄마들이 함께 아이들 키우는 좋은 마을  
 마을테마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마을  
 이웃 어른들과 아이가 어울리는 안전한 마을  
 꿈꾸는 도서관이 있는 마을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마을

### 이어나갈 의제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 2017년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 < 마을자치플랫폼 > 구축사업

- 주민대표 기구의 활성화와 마을계획 실행
-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 자치공작소 인큐베이팅
- 주민참여의 폭 확장과 마을의제를 촘촘히 실행
- 주민공론장 확장을 통한 자치활동과 동네 민주주의 실현

### < 공유부역 > 만들기

- 마을 디자인단 구성 및 공유부역 활동을 통한 이웃연결
- 1인 가구, 소외계층, 청소년 공유부역 등 공동체 복원

(2017년 행안부 혁신 읍·면·동 구축사업 재원 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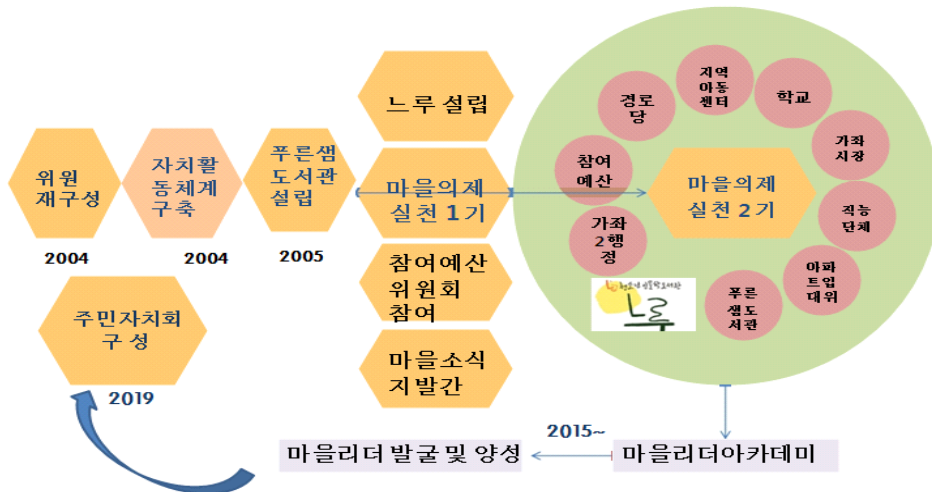
## 2019년 주민총회



## 2019 년 주민총회



## 마을의제 실천과정에서의 지역사회네트워크



## 시사점

### (2005~2014)

- 주체역량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역할 중요
- 사람, 공간, 운영체계 구축  
-> (자치위 재구성 / 자치위 공간 / 상근간사, 유급실무자, 민관협력회의)
- 어린이도서관을 주민조직의 거점공간으로 활용과 활동가 재생산
- 주민초대, 지역조사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 주민의 자발성 기초 -> 마을의 삶 속에서 천천히 실천 지속 중요
- 갈등회복의 시간 -> 존중과 인정
-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조직 강화

### (2015~현재)

- 주민자치 안정기 + 정체기 ->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공유부업 설치)
- 활동가 재생산 부진
- 주민자치위원 승계를 통한 주민자치회 구성

## 향후 과제

---

-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민주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과제
- 자치활동가 양성과 지원
-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필수과제

# 시민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 오직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 2015 년 킨톤 글리루스 Landsgrmeinde 모습 / 출처 : 제갈임주

감 사 합 니 다 ^^

# 교육, 민주시민역량을 기르다

김용진(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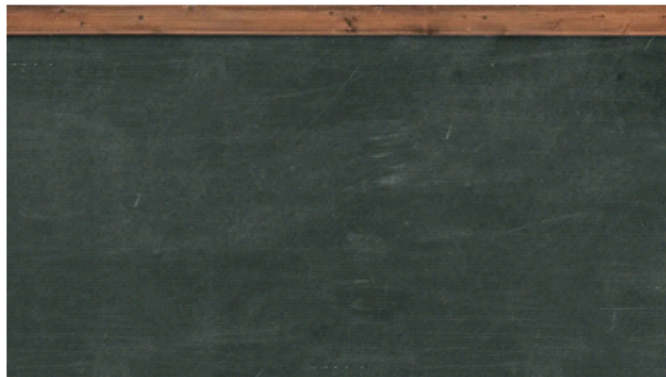


## 미래교육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용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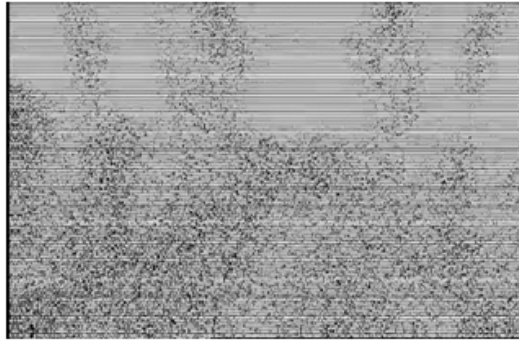
## 히든피겨스

---



## 헬렌 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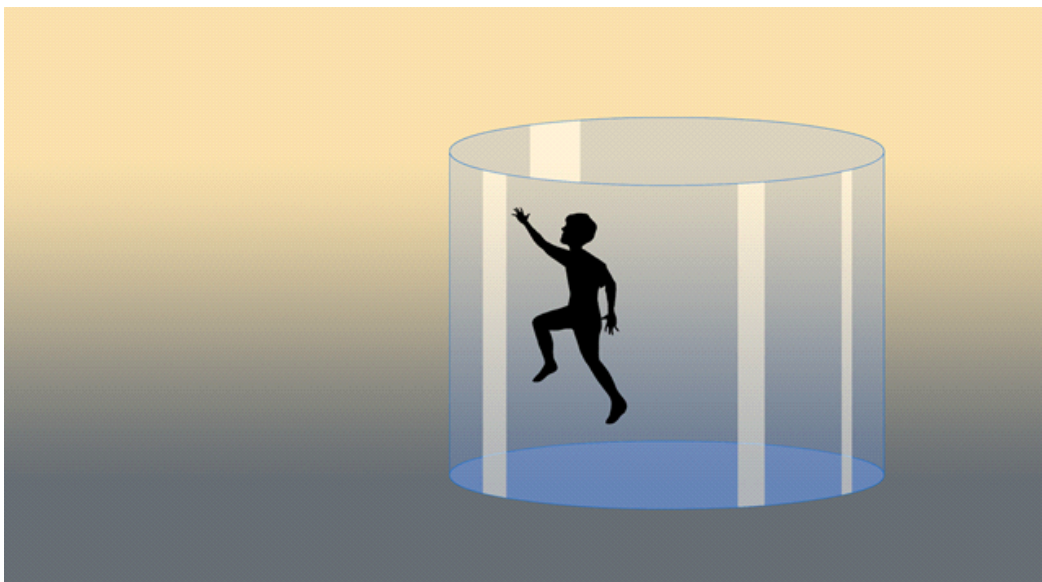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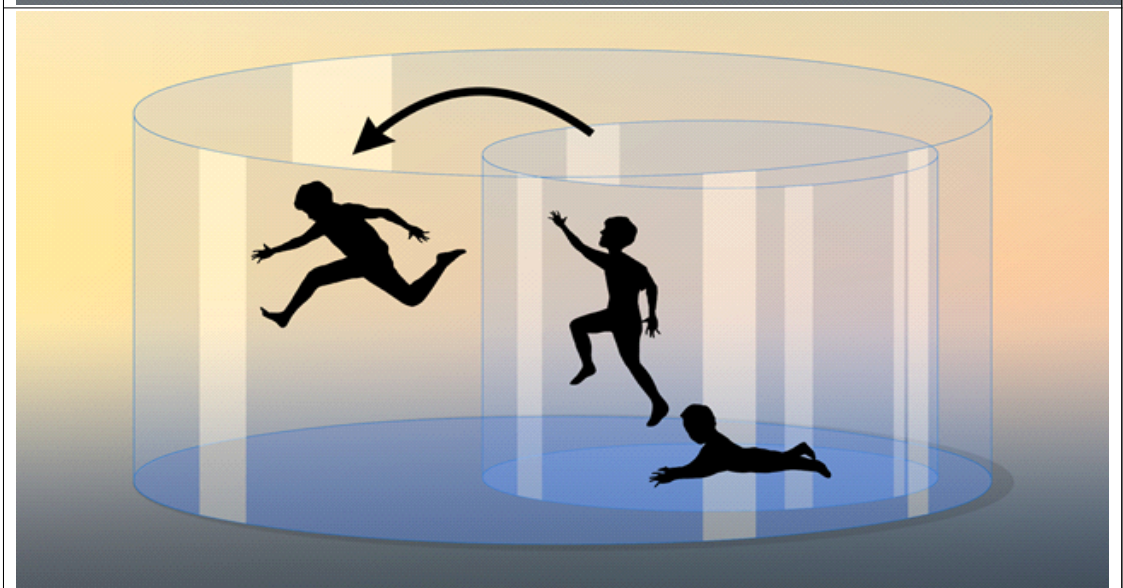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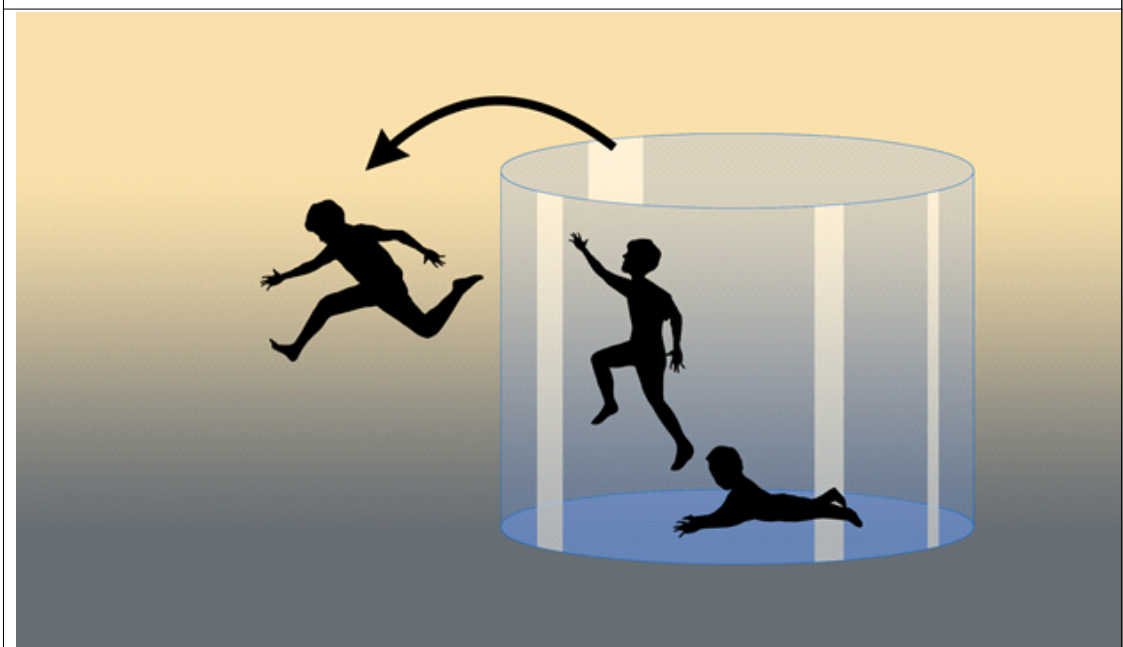


## 개인과 사회

---

-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개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사회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 조국의 딸 입시 문제는 개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사회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 개인 중심의 이해

---

개인역량(도덕성, 성실 등)

노력하기(학습)

주변변화

개인적 참여

## 사회 중심의 이해

---

정치이해(사회 구조와 사회적 자원의 배분 관계)

연대하기

제도변화

사회적 참여

## 인정투쟁(악셀 호네프)

---

인정은 사회적 관계의 근본 전제

-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정서적 개체로 인정(가족이라는 인정 관계에서 정서적 인정)
  - 법적 권리의 담지자로 인정(인지적 형식적 인정관계에서 권리 인정)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국가적 인정관계에서 개인적 특수성을 가진 주체라는 인정)
- :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사랑, 권리, 연대)
- ➡ 인정이 좌절, 무시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
  - ➡ 물화=인정 망각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 사회적조건으로 자본주의 사회)
  - ➡ 물화의 극복 :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

## 항문 없는 요괴(김동식 작가)

---

- 항문이 없는 요괴!
- 그래서 음식을 평생 한번 밖에 먹지 못한다.

[질문2]  
인간을 먹기로 했다.  
어떤 인간을 먹을 것인가?

가. 똥똥한 인간 나. 어린 인간 다. 늙은 인간

---

## 1. 똥똥한 인간

---

제가 시내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저를 훑쳐보며 비웃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똥똥하고 못생겼고 항상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선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사회에서도 w는 그냥 혐오스럽고 못생긴 돼지였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냥 인간과 못생기고 똥똥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못생기고 똥똥한 인간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인간이고, 게으른 인간이고, 의지가 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죽어야 합니다.

---

## 2. 어린 인간

---

저는 어차피 선택되지 않아도 죽을거예요.(자살) 요즘 어린 애들은 이편한 세상에 뭐 힘든게 있다고 특하면 자살이니 뭐니..

편한 세상?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바람나서 도망가고! 엄마도 친척집에 날 버리고 도망가고! 어? 친척집에서 눈치보며 살다가 중학교때부터 씹새끼한테 강간당했어. 고등학교때 도망쳐 나와서, 팔려 간 곳이 또 술집이야! 하루 하루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다가 언제가 엄마 한번 보러 가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겨우 찾아갔더니... 엄마는 나 같은 거 낯은적 없다고 기억도 안난다고.. 난 살기 싫어! 엄마한테 보여줄거야. 엄마가 낯은 딸이 어떻게 죽는지

## 팔당대교 아래서 (박찬일, 2002)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

## 빠띠 타운홀 찾아 보세요



## 항문 없는 요괴 (김동식 작가)

- 항문이 없는 요괴!
- 그래서 음식을 평생 한번 밖에 먹지 못한다.

[질문1]

자, 이제 여러분이 항문 없는 요괴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1. 소나무
2. 하이애나
3. 인간

### 3. 늙은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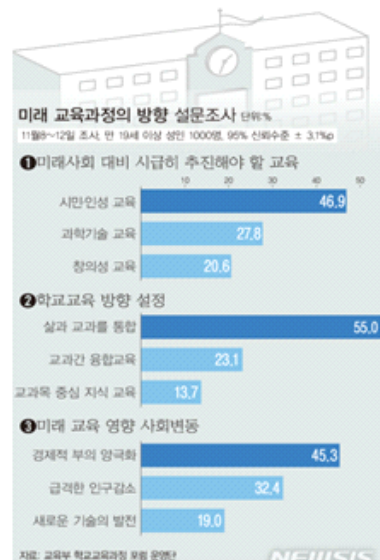
저는 .... 외롭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저를 찾지 않은지 오래고,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나눌 동무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살아지니까 살긴 하는데, 제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 뿐입니다. 이렇게나 외로운데, 죽는 그 순간만이라도 특별하게 죽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 자! 이제 선택합니다.

- 모듬별 숙의를 거쳐 결정해 주세요

### 교육부 학교교육과정 포럼 운영단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와 시사점  
 - 성윤관(2019)



## 시민교육의 목표는? (ICCS, 2016)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정치/시민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갈등 해결 기술과 효능감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지역사회에서의 학생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 생활 참여 증진	인종 차별 감소 전략 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 참여 준비

## 시민교육의 목표(ICCS, 2016)

표 II-9 교사들이 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택한 내용(3개 선택) (HDI순)

국가	사회/정치/시민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갈등 해결 기술과 효능감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지역사회에서의 학생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 생활에 참여 증진	인종 차별 감소 전략 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 참여 준비
노르웨이	45 (2.3)	39 (1.8)	19 (1.3)	44 (1.8)	36 (2.1)	16 (1.2)	74 (1.6)	16 (1.4)	19 (1.3)	4 (0.6)
독일	29 (0.4)	51 (0.4)	21 (0.3)	47 (0.4)	55 (0.4)	20 (0.3)	61 (0.4)	23 (0.3)	12 (0.3)	8 (0.3)
덴마크	44 (2.7)	21 (1.7)	22 (1.9)	43 (2.2)	45 (2.4)	8 (1.6)	91 (1.5)	12 (1.9)	6 (1.3)	18 (1.9)
네덜란드	23 (1.3)	34 (1.5)	38 (1.5)	56 (1.6)	23 (1.2)	21 (1.2)	70 (1.6)	17 (1.1)	13 (1.2)	9 (0.8)
스웨덴	19 (1.3)	44 (1.3)	13 (1.0)	28 (1.4)	64 (1.6)	2 (0.5)	80 (1.1)	15 (1.2)	38 (1.4)	6 (0.8)
<b>한국</b>	<b>38 (1.3)</b>	<b>34 (1.9)</b>	<b>27 (1.5)</b>	<b>64 (1.4)</b>	<b>53 (1.7)</b>	<b>11 (0.9)</b>	<b>24 (1.4)</b>	<b>34 (1.5)</b>	<b>2 (0.4)</b>	<b>14 (1.0)</b>
ICCS 2016	29 (0.4)	51 (0.4)	21 (0.3)	47 (0.4)	55 (0.4)	20 (0.3)	61 (0.4)	23 (0.3)	12 (0.3)	8 (0.3)

## 시민교육의 목표(ICCS, 2016)

표 II-8 교장이 선택한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3개 선택)(학생 비율%로 환산) (HDI순)

국가	사회/정치/시민기구들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존중과 보호의식 증진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능력 증진	갈등 해결 기술과 효능감 증진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지역사회에서의 학생참여 증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증진	학교 생활에 참여 증진	인종 차별 감소 전략 개발의 지원	학생들의 미래 정치 참여 준비
노르웨이	54 (4.1)	24 (3.6)	13 (3.1)	34 (4.0)	31 (3.7)	29 (3.7)	79 (3.7)	30 (4.0)	14 (3.2)	3 (1.5)
독일	27 (6.2)	14 (4.5)	18 (5.5)	70 (4.9)	38 (7.5)	2 (2.1)	75 (5.4)	38 (8.2)	33 (5.3)	22 (7.1)
덴마크	61 (3.8)	10 (2.4)	16 (3.0)	37 (3.7)	54 (4.0)	12 (2.3)	84 (2.9)	8 (2.0)	3 (1.0)	19 (3.2)
네덜란드	43 (5.4)	20 (4.0)	33 (4.6)	53 (5.2)	16 (4.0)	29 (4.9)	77 (3.9)	17 (3.9)	5 (2.1)	9 (3.0)
홍콩	53 (5.8)	46 (5.3)	4 (2.4)	7 (2.7)	73 (5.3)	37 (5.2)	58 (5.5)	19 (4.8)	2 (1.4)	1 (1.2)
스웨덴	23 (3.7)	30 (4.5)	14 (2.8)	29 (5.9)	73 (5.8)	3 (2.0)	83 (3.6)	17 (5.3)	31 (4.1)	4 (1.7)
<b>한국</b>	<b>46 (5.9)</b>	<b>32 (5.6)</b>	<b>25 (4.1)</b>	<b>64 (5.9)</b>	<b>71 (4.0)</b>	<b>12 (3.1)</b>	<b>12 (2.8)</b>	<b>40 (5.9)</b>	<b>3 (1.5)</b>	<b>13 (3.4)</b>
ICCS 2016	37 (0.9)	38 (0.9)	21 (0.8)	44 (0.9)	61 (0.9)	24 (0.8)	64 (0.8)	25 (0.8)	8 (0.5)	10 (0.5)

## 사회자본-대인 신뢰도(김희삼, 2018)

〈표 1〉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에 동의한 국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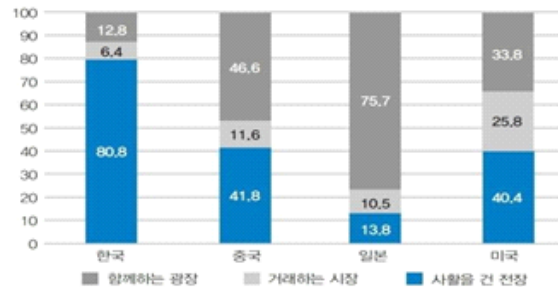
	1981~84	1989~93	1994~98	1999~2004	2005~09	2010~14
한국	38	34	30	27	28	27
일본	41	42	42	43	39	39
중국	-	60	52	55	53	63
홍콩	-	-	-	-	41	48
미국	43	52	36	36	39	35
이탈리아	25	34	-	33	30	-
독일	31	35	-	35	39	45
스웨덴	57	66	60	66	69	62
노르웨이	61	65	65	-	74	-
핀란드	57	63	49	58	62	-

주: "Most people can be trusted."와 "Can't be too careful." 중 진자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소수의 무응답과 판단 불가는 제외된 비율임.  
 자료: World Values Survey(<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 사회자본- (김희삼, 2017)

(그림 2)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 각국 대학생 대상 1000명



자료: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2017.

##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 개인의 삶(도덕적 시민성)
- 사회적 삶(사회적 시민성)
- 정치적 삶(정치적 시민성)

- Gert Biesta(2019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

# 대한민국의 헌법

---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

---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년 ~ BC 322년)

[정치학 (Politika)]

- "사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man is by nature an animal intended to live in a polis.)
- "국가가 없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나종일역,p.44)

## 민주주의

---

- 민주주의란 인민 자신을 위해 인민 스스로 정부를 세워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통치의 위계질서가 없는 지배와 피지배의 일치=지배와 피지배를 전제하지 않음)  
- 이승원(민주주의, 2017)
-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정부를 세워 직접 통치하는 것

## 공화주의

- Republicanism

-어원 : Republic(res publica)

공공의 것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 ~ B.C. 43)

[국가론(De Republica)]

"공화국은 인민의 일들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 공화주의

핵심이념

- 자유 : 주종적 연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
- 법치 : 주종적 연속 관계를 제어하기 위한 법의 지배 필요(객관성, 공정성, 공공성)
- 공공선 :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

(김경희, 공화주의, 2018)

비롤리(Maurizio Viroli, 1952~)

[공화주의(Repubblicanesimo)]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주공화국

- 시민의(에 의한) + 시민을 위한 정치체제

-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적인 존재(존엄)
- 정치(사회)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추구

즉, 자율성을 갖춘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성 갖추고

정치과정(공론의 장)에 참여하며 공공성을 추구

## 민주시민교육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교육

(주체) 주체적인 시민이

(영역) 민주주의, 인권(노동),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가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법)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참여하며 실천하게 하는 교육

## 자율성 교육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

## 부당하므로 불이행(문형순)



## 배심원들

---



## 공공성 교육

---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공적 책임을 갖는 교육

## 패치아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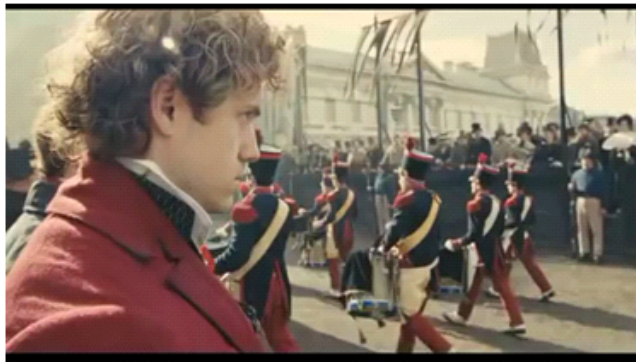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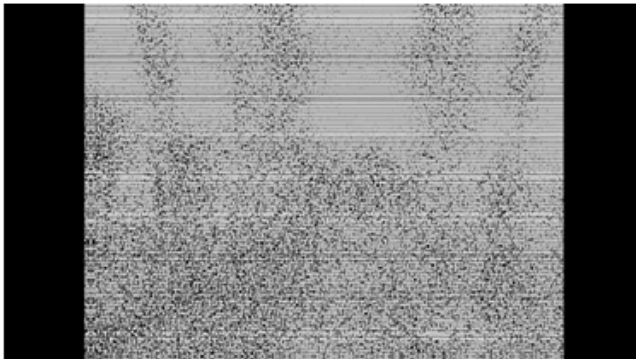
## 연대성 교육

개인 및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육

## 레미제라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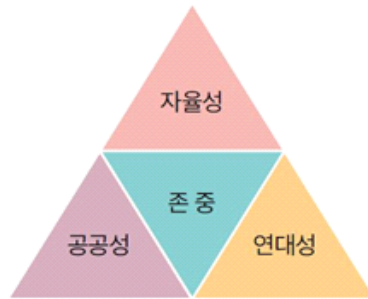
## 빵과 장미



# 셀마



##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의 관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체계



## 교육과정에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 교육의 원칙
  - 학생 주도의 원칙
  - 논쟁성 재현의 원칙
  - 교화 및 일방적 주입의 금지 원칙
- 구체적인 교수학습
  - 사회참여수업
  - 논쟁 수업

## 사회참여 수업 프로젝트

- 사회참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위
- 사회참여교육

학생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를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

- 2020 학생시민을 위한 학생자치 안내서(인천광역시교육청)

## 사회참여수업 과정

-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원인) 찾기
- 관련한 기존 방법이나 제도 찾기
-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계획) 짜기 및 실천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모형)

# 사례1 (원동초)

**제목 :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학교**

계안학교 : 인천원동초등학교

1. 문제 제기

-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학교내 시각장애인 안내 시설인 촉지도 안내도 설치 및 각 교실 앞 접자 표시 스티커 부착,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TV수화인사

- 어떤 불편이 있나요?

일반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며, 일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장애 이해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각 장애인 보도블럭의 학교내 설치, 촉지도 안내도, 각 교실내 안내 접자 표시 등 여러가지 장애인 보조시설을 설치 하지 않음으로 장애 이해 교육 및 인권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짐

2. 원인 분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민주시민교육학생동아리 회원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교내 접자 안내도 및 각 교실 접자 미표시, 학교 입구부터 건물까지의 접자 보도블럭의 부재, 촉지도 안내도의 미설치, 학교안내방송의 수화안내 방송의 등이 없음을 알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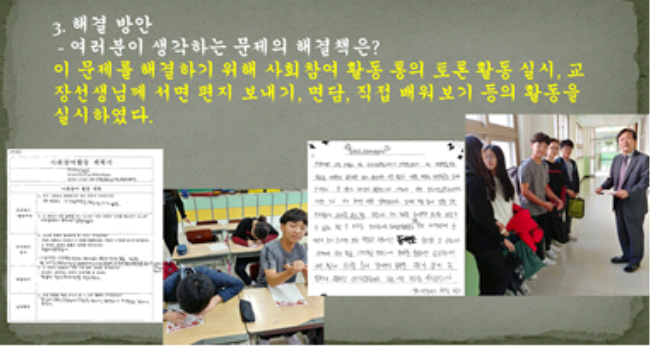
-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 제도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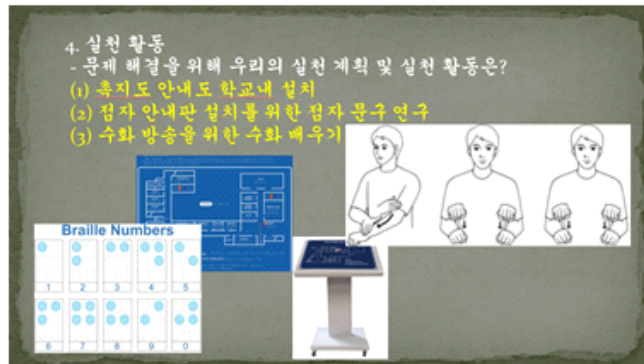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의표시실,교육시설)등이 있다.

3. 해결 방안

-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참여 활동 등의 토론 활동 실시, 교장선생님께 서면 편지 보내기, 면담, 직접 배워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 사례2(인천공항중)

### 제목 : 저어새 서식지 지키기 프로젝트

제안학교 : 인천공항중학교

#### 1. 문제제기

- 해결하고 싶은 문제 : 우리 마을의 저어새 서식지 보존
- 어떤 불편이 있나요?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지가 없어질 예정임.  
하지만 영종지역 사람들이 저어새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모름

#### 2. 원인 분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 1)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사는 곳을 보존해주는 것
  - 영종도 수하암(저어새 서식지) 알리기
- 2) 직접 저어새 서식지(수하암) 방문
- 3) 저어새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기



### 3. 해결 방안 :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 저어새 서식지의 보존을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 저어새 서식지에 알리기 및 서식지 보존 및 대책에 대하여 공감.



### 4. 실천 활동 :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실천 계획 및 실천 활동은?

- : 사람들에게 수하암의 저어새 알리기 활동
-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자
  - 1) 저어새 모양 펄러비즈 만들기
  - 2) 저어새 글씨 예코백 만들기  
(with RIOJEE 작가)
  - 3) 저어새에게 메시지 남기기
  - 4) 저어새 관련 기사쓰기
  - 5) 저어새와 관련한 노래 만들기



## 학생자치

- 학생자치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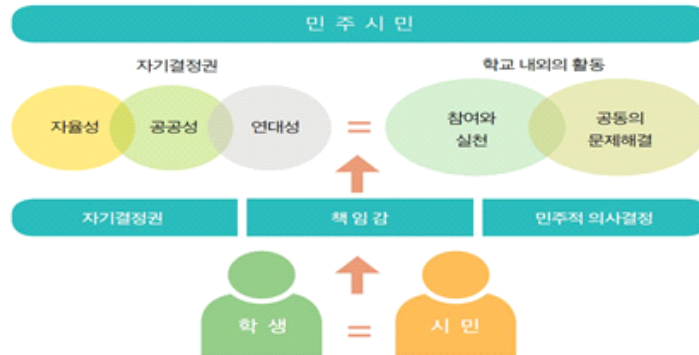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당연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감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 학생자치



# 학생자치활동

<좁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학교 학생자치회 활동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학급회	학년회	학생회	동아리회	교육청 활동
학급회 중심의 활동	학년회 중심의 활동	학생회 중심의 활동 대의원회 중심의	(자율)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네트워크 활동

# 학생자치활동

<넓은 의미의 학생자치활동>

구분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내 활동	프로젝트수업 수업규칙정하기	학생자치회활동	(자율)동아리활동 스포츠클럽활동	학교내 봉사활동	진로 교육
학교 밖 (사회참여)활동	마을교육공동체 연계수업	학생자치회 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교외봉사 활동	직업 체험

## 학급자치 (스스路학급, 학급회의, 동아리)



## 스스로 학급 (학생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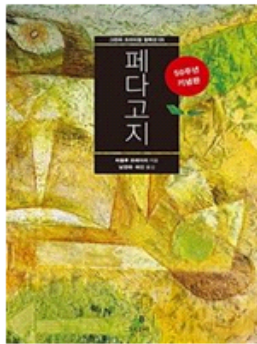
## 사회참여 = 마을교육 = 학생자치



##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 삶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교육
- 학생이 시민으로 학교내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처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계발해야 한다. 즉 세계를 정태적 현실로서가 아니라 변화 과정의 현실로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 파울루 프레이리(페다고지)

##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

We make the Road By Walking.

: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 파울로 프레이리, 마일즈 호트

## 영화로 보는 민주시민교육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지도자 없는 다중이 만들어내는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 콜리지알스, 민중의 의회



콜리지알스, 민중의 의회(Colegiales, People's Assembly)  
구스타보 라스키에|2006|다큐 |62분| 아르헨티나

심각한 수준의 정치·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2001년 아르헨티나. 대규모 정리해고와 고실업률, 예금동결, 폐소화 평가절하, 월급 및 연금의 공채지급, 소득감소 등으로 빈민층 증가율은 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한계에 다다른 민중들의 분노는 폭발하여, 2주일 사이에 네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미래의 삶을 희망 없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주민, 활동가들이 함께 민중의회를 조직하고 자치운동을 벌인다. 민중 의회는 스스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에 나서고, 공공의료 활동 등을 하며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자치가 가능한 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다양한 군상이 모인 민중 회의의 길이 쉽지 않은 얹는데...

갈등과 분열의 과정을 딛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고자 했던 아르헨티나 민중의 도전은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

는 질문을 던진다.

(출처 : 23회 인천인권영화제 개막작 작품해설)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민의 40퍼센트가 민중의회를 미래의 국가 운영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3백여 개의 민중회의가 조직되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일상투쟁의 기획과 집행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치토론의 장으로서 기능  
참정권은 투표권이 아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대표를 뽑을 권리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할 권리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투표권뿐이니 투표가 끝난 뒤 정치에 참여하려면 차벽을 넘거나 경찰의 방패에 맞닥뜨려야 한다. 억울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참으라고 한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 우리가 원하는 대표가 나올지, 그 대표가 우리 뜻을 따를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이다. 참는 게 아니라 화병이 날 지경이지만 딱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 하는 걸까. 남미 아르헨티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서 식민지와 군사독재, 신자유주의와 국가부도사태가 이어졌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인권이 짓밟혀도 대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민중 의회와 피켓테로(Piquetero, 실업자운동)는 “모두 다 꺼져라(Que se vayan todos)”를 외치며 탄생했다.

민중 의회는 대단한 조직이 아니다. 다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소’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꿨다. 영화에 나오듯 민중 의회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는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거대한 것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체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선거의 덫을 거부하라.”라고 외치며 우리 자신을 의회로, 권력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다음 선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자각이 정치에 머물 이유도 없다. 이 영화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2001년 국가 부도선언 이후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들은 폐쇄된 2,500개의 작업장 중 약 150~200개의 작업장을 점거하고 다시 생산을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없어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본가들은 마음대로 공장의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를 잡아가든지 아무도 잡아가지 말라”, 민중 의회는 이렇게 요구한다. 이런 요구에서 우두머리가 없는 조직, 공식적인 대표자가 없는 의회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민중 의회는 다양한 발언들이, 수평성의 원리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내부의 폭력과 갈등, 분열도 생기지만 그마저도 끊임없는 논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의회는 뭔가를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공간인 민중 의회는 넘마주이를 쫓아내는 기차역과 싸우고 집을 압류하려는 사람들과 싸운다. 어떤 싸움은 이기고 어떤 싸움은 진다. 하지만 활동은 이어지고 싸움의 기억은 지속된다. 국가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리를, 그리고 권력을 구성하겠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중 의회는 그곳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을까, 아닐까? 영화를 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출처 : 23회 인천인권영화제 인권해설)

## 지미스 홀



지미스 홀(Jimmy' Hall) 켄 로치 | 2014 | 극영화 | 109분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대공황으로 혼란에 빠진 뉴욕을 떠나 십 년 만에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온 지미. 그의 귀향과 함께 조용했던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지미가 경험한 자유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은 자신들도 마음껏 춤추고 즐길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지미는 왕년의 동료들과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문학과 음악, 미술을 배우고 함께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하지만 변화를 위협하게 여긴 마을 신부와 지도층들이 지미와 동료들을 무신론자에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마을회관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출처 : DAUM영화)

청년들은 지미에게 마을회관 재개장을 요구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다.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와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기성세대에게 모든 걸 맡긴 채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재개장한 마을회관은 마을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머물며 가벼운 수다부터 중요한 현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여론의 장'이며, 동시에 지주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농토와 거주지를 다시 되찾기를 시도하는 '민중의 법정'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일랜드 민요를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기도 하다. 즉, 마을회관은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었던 셈이다. 그 안에서 벌어질 다양한 교육의 콘텐츠는 청년들 스스로 채워 나간다. 마을회관에선 문학, 미술, 복싱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모두가 서로에게 강사이자 학생이 되는 수평적 조직의 일원이 되어 커뮤니티 공간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간다.

지미스 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철저히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마저 대부분 인터넷에 빼앗긴 21세기에 마을회관을 되살리자는 구호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해도 오프라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아직 훨씬 많다. 직접 써온 시를 읽고 함께 토론을 하고, 서로의 복싱 파트너가 되어주며, 다함께 모여 춤을 추는 건 '물리적 공간'과 '함께 할 구성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마을회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기성세대의 후원과 '배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세대의 능동성이 더해지면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미스 홀이 그렇게 다시 열린 것처럼.

### 함께 나누는 얘기들.

- 촛불혁명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수평적 환대의 공동체는 가능한가?
- 정체성이 아닌 다양성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배타적 소유가 아닌 공통적인 것을 지향할 수 있을까?

## 민주시민교육 기획안 만들기